

임실필봉농악 '필봉마을 굿축제' 개최

'삶이 굿... 굿이 삶'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오는 8월 11~14일 임실군 강진면 필봉농악전수관에서 '제22회 필봉마을굿축제'를 개최한다.

'삶이 굿이고 굿이 삶이여'라는 농악 한마당으로 꾸러지는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국가무형문화재 필봉농악을 비롯해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감동농악, 구례잔수농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마을굿의 대표적인 필봉농악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상필봉마을에서 오랜 세월동안 전승돼 온 것으로 농경공동체사회의 생생한 삶의 기록과 예술적 미학을 동시에 구현해 낸다.

이번 축제에는 농악 이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등 관람객을 위한 다

내달 11일부터 나흘간 강진면 농악전수관서

국가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등 관람객 위한 프로그램 다채

취락원서 창작 연희극 대동관에선 아동연희극 공연 인문학 콘서트·전승자 체험도

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취락원에서는 특별기획공연 창작 연희극 '히히나라' '필봉연가' 등 전통 연희의 멋과 기예를, 대동관에서는 아동연희극 '내손안의도깨비'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굿은 협하여~'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양진성 관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필봉농악 인간문화재)이 풍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대, 농악이 가진 협화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축제를 배우다, 축제를 즐기다, 축제를 팔다'를 주제로 한 나도 전승자 체험에는 필봉농악의 다양한 악기들과 소리를 배워보는 시간과 상쇠를 뽑고 마당밧이를 시연하는 체험,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 정터들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제5회 전국 대학생 양순용배 풍물굿 경연대회, 제5회 전국전통연희 생활문화동호인 경연대회, 제12회 전국전통연희 개인놀이 경연대회도 열린다.

양진성 필봉농악보존회 회장은 "전통사회에서 '풍물굿'이 인류 보편적인 삶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몸짓과 해학으로 풀어내어 공동체사회의 치유와 재생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듯, 현대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로 또 우리라는 공동성을 회복하는 매개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필봉마을굿축제는 '필봉농악'이 대표적인 풍물굿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던 고(故)양순용 명인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부터 열리고 있다. /정해은 기자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사업 결과 공유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지난 27일 예술인 문화기량 활성화사업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의 청년작가 중 7월에 입주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공유에서는 주민과 사업관계자가 참여하여 한 달 동안 주민과의 네트워킹 및 창작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4명의 청년작가들은 "한 달 동안 완주의 맛과 멋을 탐방하며 완주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힐링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한층 더 승화시켰다"고 참여 소회를 밝혔다.

힐링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찾고 있던 김남령, 박진아씨는 "용진면 간중리는 생각보다 자연과 별레들의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말들은 전혀 귀가 아프지 않은 지저귀임으로 다기와 재미를 안겼다"고 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첫사랑과 자연의 풍경을 주제로 작곡을 진행한 임자연 씨는 "햇살이 시끄럽게 내리쬐던 7월 한 달 동안 고산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많이 걷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용진면 신지리에 거주했던 최광식 청년작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로컬 푸드를 음식을 해먹고 완주 밥하늘의 별빛을 보다 잠을 잤다"며 시나리오를 쓰는데 활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외에 세 명의 음악전공 청년작가들은 완주를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악기로 작곡한 싱글미네앨범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휘드미헤김 작품전, 9월 3일까지 장미갤러리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에서는 오는 9월 3일까지 박물관의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 '자연의 색(Colors of Nature)'이라는 주제로 서양화가 휘드미헤 김의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여는 휘드미헤김은 군산 출신의 화가로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 시티에서 수학한 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 꾸준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미국 생활과 군산에서의 삶을 토대로 힘이 넘치는 색감을 보여주는 김 작가의 이번 전시회는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여행을 하면서 작업의 모티브를 얻는 작품 '잃어버린 세계',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등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꿈꾸는 일탈과 미지의 세계를 표현했다. /군산=장 현 기자

외국인들에게 우리 무형유산 알려준다

국립무형유산원, 내달 1일·26일 체험교육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오는 8월 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2017 외국인 무형유산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쉽게 누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산원이 교육·공연·전시를 통합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8월 1일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70명과 (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초청한 외국인 청소년 50여명이 함께 '한지 위에 금박 문양을 찍어 카드를 만드는 금박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매듭과 매듭을 연결하여 팔찌를 만드는 매듭장' (국가무

형문화재 제22호), '흥겨운 우리 가락을 연주해보는 평택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모두 손잡고 하나 되어 춤춰 보는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6일에는 터키문화원이 초청한 터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크 예크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 택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을 배워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과 일본의 모시짜기 특별전시를 감상하고, 2017 이수자던 공연 '함경도의 소리, 함성'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경험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인류무형유산인 '강강술래' 체험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